

제 4 강 이스라엘의 언약: 파트 2

I. 아브라함 언약, 그 이후

A. 땅, 자손, 그리고 축복

아브라함 언약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땅, 자손, 그리고 축복**.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그가 열방에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다.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주제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후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들 속에서 구체화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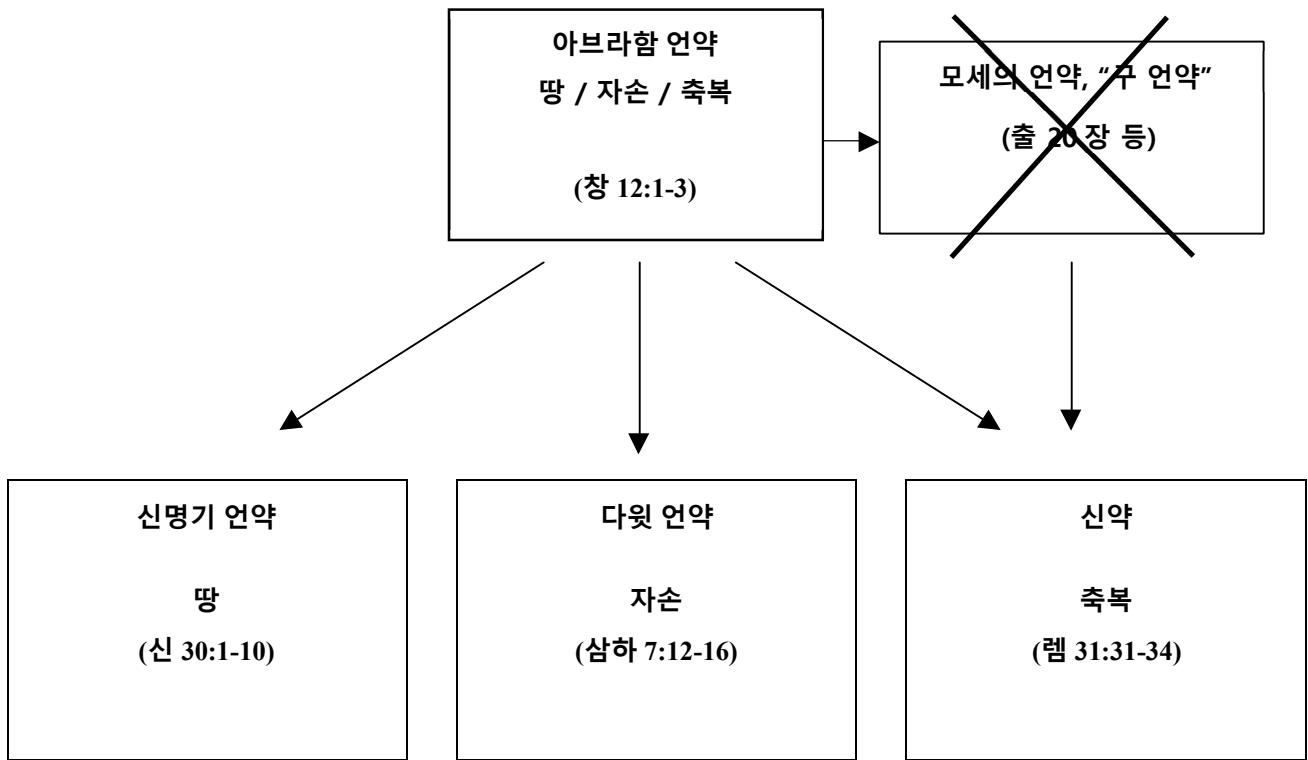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1. 땅에 대한 부분은 **신명기 언약**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팔레스타인 언약**, 혹은 **땅의 언약**이라고도 불린다)
2. 자손에 대한 부분은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된다.
3. 축복에 대한 부분은 **신약**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언약들은 ‘**약속의 언약들**’이라 불리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언약들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1-13)**

그림.1 구약에서 언약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



B. 하나님의 전 세계 구원 계획의 δ누가, 언제, 어떻게δ의 부분

아브라함 언약이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δ어떤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를 언급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언약들은 δ누가, 언제, 어떻게δ의 부분들을 설명하며 이 계획의 상세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가계를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실 지를 보여준다. 각각의 언약은 따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게 된다.

C. 모세 언약의 역할

- 1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무조건적인 약속들의 어떤 부분도 이어받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유일한 조건부적인 언약이었으며, 이것의 성취의 여부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는지에 달려있었다. 모세 언약의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신명기 28 장에 잘 나와있다.

2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이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는지와 관계가 없었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달려 있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하여진** 것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함으로 그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그들 자신의 힘이나 의로 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 ¹⁶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 ¹⁷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¹⁸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¹⁹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 ²¹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²²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 (갈 3:15-25)

II. 신명기 언약 (땅 언약, 신 29:1-30:20)

A. 모세 언약과 명확히 별개인 언약

¹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 29:1)

이 언약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모세 언약과 명확히 분리된다.

1. 신명기 언약은 모세 언약 이후 40 년이 지난 다음에 주어졌으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워진 것이었다 (신 29:5-8).
2. 신명기 언약은 모압에서 주어졌으며, 모세 언약은 호렘산(시내산)에서 맺어진 것이었다.

신명기 언약 전체는 **신명기 29-30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핵심 부분은 **신명기 30:1-10 절**에 나와있다.

B. 이 언약의 목적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해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게 될지라도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종국적으로는 이 땅을 소유하며, 큰 번영과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새로운 세대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엄숙하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신명기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이제 막 소유하게 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이 언약의 성취 여부는 그들의 순종이 아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2. 아브라함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의 측면을 더 설명해주는 역할

이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는 시기와 조건, 즉 **δ언제δ**와 **δ어떻게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언약은 그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될지를 다루고 있다.

C.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세대이며, 이스라엘의 그 이후 세대까지도 포함한다.

¹⁰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¹¹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¹²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¹³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 29:10-13)

이 언약은 모세나 여호수아 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후 세대까지도 포함하여 맺어진 것이다. 이는 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¹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¹⁵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 29:14-15)

D. 이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1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30:1-10)

우리는 3 강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이 3 가지 됨을 다뤘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약속이다. 이에 반해 신명기 언약(땅의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국가)만을 향한 약속이다.

1. 이 나라는 신명기 28 장의 축복과 저주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신 30:1)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약속된 부분이지만, 유업으로 받은 땅을 실제로 소유하는지는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의에 달려 있는 부분이었다 (레 18 장; 신 28 장; 30:20).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순종할 때는 이 땅에 넘칠 복이,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었다. 이 저주에는 역병과 재난, 그리고 그들이 땅에 거하고 있다면 땅의 온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열국으로 흩어지는 부분은 이미 창세기 15:13 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Walvoord, “The Millennial Kingdom: A Basic Text in Premillennial Theology” p.176)

2.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²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 30:2)

3.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으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³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 30:3)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진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⁵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 (신 30:5)

고대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사라진 이스라엘이 2천년이 지난 이후인 현재, 동일한 곳에 정치적인 국가로 다시 세워져 있는 것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5.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⁵ ...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 (신 30:5)

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성장과 전에 없던 번영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⁵ ...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신 30:5)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열국 중에 얼마 남기지 않으시며,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신명기 28 장의 저주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신 28:58-66).

7. 온 이스라엘은 구원될 것이다.

⁶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의롭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사 60:21).

8.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은 망할 것이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신 30:7)

하나님께서서는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를 종식시키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도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9. 이 땅에는 물리적, 농경, 경제적인 번영이 부어질 것이다.

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 30:9)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목축의 새끼와 네 땅의 열매를 네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같이 너의 번영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실 것임이니 (한글 KJV, 신 30:9)

10. 영적인 번영 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10 ...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30:10)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땅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지로 사용하실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은 이후 예언들에서 재확인된다 (렘 32:36-44; 겔 16 장; 겔 36:22-38)

E. 이 약속들은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미래에 성취되는가?

이 약속의 대부분은 미래에 성취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은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문자적으로 일어났기에, 이 나라의 회복 또한 문자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1948 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에 재건된 것은 이 언약의 남아있는 약속들의 성취의 서막을 보여준다.

F. 이는 조건적인 언약인가, 무조건적인 언약인가?

이 언약의 거의 모든 부분들은 긴 기간 동안의 불순종과 황폐함 이후에 부여지게 될 회복에 대한 것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무조건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먼저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이 언약의 성취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지에 달려있다.

이미 성취된 부분인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두 번이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고 돌아오는 것 모두에 대해 주권적으로 명확하게 성취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명확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흩어진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를 볼 때 이 약속들은 조건부적인 것이 확실하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달려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모세의 선포에도 기록되어 있다 (신 30:1-5).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흩어지는 일도 명확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이미 명확히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할 지도 인지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계획의 확실함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조건적인 것이 된다. (Walvoord p.177)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볼 때, δ조건부적δ 또는 δ무조건적δ이라는 단어들은 여기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마도 δ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의 명확성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 언약을 현재 한 개인이나 나라가 누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언약이 무조건적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한 나라로써 존재하게 될 것도 살펴보았다. 이 두 결론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은 이 언약이 무조건적이며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써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Walvoord p.174-5)

G.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비취볼 수 있는 부분

이 원리의 한 예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 땅은 창 15:13-14 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으로 약속되었지만, 민 13-14 장은 한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 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는 믿음과 순종,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달려 있는 조건부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게 된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신다.

⁸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⁹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¹⁰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¹¹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 95:8-11)

이 불순종은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게 무조건적으로 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단지 이 나라가 한 나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까지 (순종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지연되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세대는 이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이를 소유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그들이 그 땅에 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설명하셨다 (겔 36:26, 33).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III. 새로운 언약, 신약 (렘 31:31-34)

A. 도입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길을 전 세계 가운데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열방에 보여줌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었다 (출 19:6; 신 4:4-7).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온 땅에 흠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레 18 장, 신 28 장). 그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무조건적으로, 또 영원한 유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땅의 언약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의롭게 되는지에 달려있는 부분이었다.
3. 만일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들이 모세 율법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적인 것이 될 경우, 이스라엘은 율법을 깨뜨렸기에 아브라함 언약은 성취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게 되고, 이 언약이 조건부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4. 우리는 땅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해서이다.

³¹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³²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³³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³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1-34)

B. 신약, 새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δ축복δ의 부분을 구체화해준다. 이 언약의 목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율법과 관계없이 의로움이 부어지도록

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 8:7-8)

첫 언약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다. 이는 언제나 앞으로 올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 2.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 3.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향한 δ축복δ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 재헌신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 29-30 장).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국가적인 회복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C.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³¹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1)**

예레미야서 말씀에 따르면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다.

- 1. 첫째,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칠 이 새로운 언약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다 (사 59:20-21; 렘 31:31; 50:4-5; 겔 34:25-30, 36:25-26, 37:21-28).

- 2.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율법)을 세운 민족의 후손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렘 31:32)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세 율법을 주셨으며 (레 26:46; 신 4:8),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다 (롬 2:14). 따라서 위 말씀에 따라 새 언약의 당사자 또한 야곱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세워진 것이다.

- 3. 셋째, 구약은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과 야곱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고 영원히 서는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며, 자신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이다.

³⁵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³⁶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³⁷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³⁸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³⁹ 측량줄이 곧게 가렷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⁴⁰ ...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렘 31:35-40)

D. 새 언약은 조건부적인가, 무조건적인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으며,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 있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를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으며 (즉, 그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선제 조건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할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다.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겔 36:22)

새 언약의 성취 여부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순종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들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렘 31:31-34; 32:37-42; 겔 36:24-37)

새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대해 충성되신 하나님께서 달려있었다.

36 ...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겔 36:36)

E. 이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하셨다 (사 61:8-9; 렘 32:40; 겔 16:60; 37:26).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을 볼 때,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에 의해 폐해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단 언약이 세워지면, 여기에 약속된 부분들은 성취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영원히 지속되게 된다. 새 언약의 어떤 약속들은 본질상 순전히 영적인 것도 있지만, 물리적이고 국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1. 새롭게 하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함) (렘 31:33; 32:39-40; 겔 36:26).
2. 죄사함 (렘 31:34; 겔 36:25).
3. 성령의 내주하심 (겔 36:27).
4.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짐 (렘 31:34)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 뿐만이 아닌, 그분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계신다 (진정한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지식. 즉, 새 언약에 근거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 롬 11:26)

5.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함 (렘 32:39-40; 겔 36:27; 37:23-24)

6.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많은 국가적인 축복
 - a.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음 (사 59:21)
 - b.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게 됨 (사 61:8-9)
 - c.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분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게 됨 (렘 31:33; 겔 36:28)
 - d.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 (렘 32:40-42)
 - e.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 (겔 34:25-28)
 - f. 이스라엘 땅은 부유하게 되어 에덴 동산과 같다는 말을 들음 (겔 34:29; 36:34-35).
 - g. 이스라엘 도시들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됨 (겔 36:33)
 - h.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이스라엘에 두시고,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처소를 두심(겔 37:26-28)
 - i.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심

F. 이 언약의 조항들은 성취되었는가?

1.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고전 11:25; 히 8:6-13; 9:15; 12:24).

¹⁹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

2. 새 언약의 영적인 축복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누릴 수 있다

¹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¹⁵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¹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18)

3.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 주어진 약속의 대부분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초림 때에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실패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때에 그들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이 나라의 2천년 간의 불순종에도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 이 국가적인 축복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부여지게 된다.

이 약속들은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그때는 새 언약의 국가적인 약속들과 땅의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5.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인 축복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의 국가적인 약속들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지도자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는 새 언약의 영적인 축복(영생,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들어간 택함받은 (구원받은) 남은 유대인들(바울이 롬 9장에서 언급)이 있어왔다. 이방인 성도들은 동일한 언약에 접붙임을 받으며,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 (롬 11 장; 엡 2 장).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새 언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결국 새 언약 아래에서 국가적인 약속들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구약(모세 언약)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땅을 유업을 받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세대의 대부분과 달리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

IV. 우리는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A.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의 핵심적인 날짜들을 보면

1. 1896년 6월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유대인 정부'라는 글에서 핍박받고 권리를 잃어버린, 모국이 필요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글을 쓴다.

2. 1897 년 6 스위스 바젤에서 현대 시오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르 헤르츨의 주도 하에 첫번째 시온주의 회의가 열린다. 그는 이 회의 이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바젤 회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을 것이다: ‘바젤에서, 나는 유대인 정부를 세웠다. 만일 이것을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이 일이 5 년 안에 안 되더라도 확실히 50 년 안에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1917 년 6 영국 정부는 발포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모국을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감을 밝혔다.
4. 1922 년 6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위임 통치를 부여받는다.
5. 1947 년 11 월 29 일 6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정부, 즉 유대 정부와 아랍 정부로 나누는 분할안을 채택한다. 이에 대한 투표는 필요정족수 2/3 이상에 의해 진행되었다.
6. 1948 년 5 월 14 일 6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짐

B. 현대 이스라엘 정부의 배경 (발췌: **“Our Father Abraham: Jewish Roots of the Christian Faith”** by Marvin R. Wilso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년 4 월)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복잡 다단한 성경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결과물로서 태어났다.

시온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성경적인 소망은 최소한 전 세계 유대인들의 공통의 소망이었지만, **영적인 문제는 초기 현대 시오니즘 지도자들의 주관심사가 아니었다.**

1. 테오도르 헤르츨[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운동의 정치적인 면에 쏟았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은 국가적인 부흥을 맞고 있을 시기에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유대인 모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또 다른 초기 시온주의자 리더인 아하드 하-암은 **유대인 난민들이 문화와 학습과 역사에 대한 종교적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3. 시온주의 운동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 갔으며, 이는 데이빗 벤 구리온에 의한 **사회주의적 관점**, 블라디미르 야보틴스키의 **군사적 국가주의**, 유대인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의 요구와 권리들도

인정하는 하나의 정부(bi-national, one-state)를 주장한 마틴 부버의 **유대적 인본주의** 등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다.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졌을 때, 이 새로운 존재는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였다. 고대 백성이 한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적, 자연적인 힘에 의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충돌하는 관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안의 엄격한 하시딕 공동체의 많은 수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거절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며 많은 부분이 세속적인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특히 선지자의 시대부터 종종 권력을 얻기 위해 다뤘지만,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군사력이나 정치적 연합, 세속적인 권력에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시 33:16-19; 147:10-11; 사 31:1; 속 4:6).

현재는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속칭 세속적 메시아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δ유대인들은 구원을 추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í .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한숨을 쉬기보다 일하고 세워 나간다.ö

C. 현대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적 시각 2 가지

1. 대체 신학

이 관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며,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은 영적으로만 해석되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2. 예언의 성취로 보는 입장

이 관점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본다. 이를 하나님의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로 봐야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올바른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이 관점에는 몇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a. 이 관점의 극단적인 입장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도 있으며, 이 정의와 진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의 택하심의 기초이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현대의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독단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련의 전천년주의자들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때로는 유연성이 결여된 결정론적 입장을 가지거나 도덕적인 인도주의적 고려가 결여된 언어로 표현되곤 한다 ... 예를 들어 현대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진 것에 대한 다음의 반응을 살펴보자: “유대인들은 영국이나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행여 그들의 도움 없이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시오니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다.” (Wilson, p.265)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땅에 대해 “하늘의 주권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역사에는 “성경의 명령”이나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문제없다고 여긴 이들로 인해 비극적인 희생자가 된 개인이나 사회가 겪은 파괴의 흔적들이 널려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자행하고 지지한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나 유럽의 십자군 원정,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매사추세츠 살렘의 마녀 살인과 같은 일의 잔인함과 피흘림을 보라. 따라서 우리는 이 땅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이는 또한 주어진 땅에 대해 한 나라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 군사적인 정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ilson, p.266)

이스라엘에 대한 전천년주의자의 태도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역사를 통해 가져왔던 철학이 여러 부분에서 도덕률 폐기론자 이단들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도덕률 폐기론(antinomian)이라는 단어는 “법 없음”을 의미하며; 만일 모든 행동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은 도덕률에 의해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어떤 기준을 순종할지 아닐 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다면, 유대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지고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법 (도덕)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이 판단받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전천년주의가 예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실제화될 때 드러나는 결과들이다. (Dwight Wilson, Armageddon Now! P.143)

종종 미래에 대해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종말론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로, 성서학자는 종말론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특정한 세계의 재난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의무는 ...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해 나가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한다” (Wilson, P.266)

b.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는 약속의 땅인가?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에 임할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이 땅이 큰 평안과 영적인 갱신을 누림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겔 36:24-28; 미 4:1-5). 우리는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아직 불안정한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마커스 바스(Markus Barth)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는 경고는 맞다고 볼 수 있다 ... 명확하게,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는 예언 가운데 그려진 완벽하고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며 매우 크다. (Wilson, p.268)

D. 다른 방향의 접근 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할 일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다 (신 16:20).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향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예언적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어느 방향이 되든지, 이는 선지자들이 요구한 공의를 성취하게 된다 (암 5:24; 미 6:8) (Wilson, p.270)

1. 땅의 문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심부에 새겨져 있다.
2.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지금 예언적인 부르심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연대, 연합(solidarity)라는 단어를 쓸 때, 정치적인 동의나 연합이 아닌 주로 영적인 뿌리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나 우리에게 이 뿌리들을 선사한 백성들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아랍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유업의 빛을 지고 있다. (Wilson, p.271)

3.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그리고 대적이 사람들을 속여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를 이해하며 이를 기도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나라 안에 있는 불의와 고질적인 증오의 문제를 인식하며 기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두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시 122:6).
 - a. 영적인 평화 6 메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 b. 정치적 평화 6 국가적인 차원에서

c. 사회적 평화 ó 도시의 각 개인 사이에 (안전, 공급, 기쁨)

이스라엘에는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평화가 부여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부여주시기를 기도해 나가야 한다.

4.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된다.